

여... 5.00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10.50 11.00

수요한·김활란·노천명·모운숙등 친일문인 정신대 차출 한몫

일제가 조선인 여성들을 중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로 끌고갈 당시 친일파 조선인들이 적극 나서 이를 독려했는데도 그동안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번에 정신대 실태의 일부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일제의 만행에 앞장서 협력한 친일파들의 행적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반민족문제연구소 김봉우(41) 소장은 "해방 직후 일본의 식민 통치기구나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못해 지금까지도 정부의 골육적인 대일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일제와 친일

구성원 '중군위안부' 1백여명으로 직영 '육군위안소'를 개설한 것은 중일전쟁이 터진 이듬해인 1938년으로 이때부터 일본군은 친일파 조선인 매춘업자들을 동원해 '여공·여점원·간호부 모집'이라고 속여 조선여성들을 군용 매춘부로 끌고갔다.

인천에서 '송학부'라는 유곽을 경영하던 하운명은 '중군위안부' 수심명을 끌고 싱가포르까지 일본군을 따라가기도 했다.

또 김택홍·홍국철·김병건 등 친일 매춘업자들이 중국 자싱·광둥·저장성 닝보·장쑤성 포구 등지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매춘

조선여성들을 중군위안부나 근로정신대로 끌고가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

당시 일제가 형식상 '모집' '지도·권장' 등의 방법으로 조선여성들을 끌고가면서 이들 친일파의 활동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불놀이'라는 한국 최초의 자유시를 쓴 작가 주요한은 '대기'라는 시에서 "까만 댕기에 하이얀 간호복 입고/저도 나라를 위해/있는 힘 다 바치겠어요"(<국민문학> 1941년 11월)라고 썼다.

간호부가 되는 줄 알고 따라

들/...총알에 맞아 뚫어진 자리/손으로 만지며 기우려 하니/탄환을 맞던 광경/머리에 떠올라/뜨거운 눈물이/피잉도네"(<매일신보> 42년 3월4일자)라며 일제의 여성 근로동원을 시로써 미화시켰다.

노천명과 더불어 양대 여류시인이던 모운숙은 41년 12월 일본군의 진주만 습격 직후 '조선 임전보국단'이라는 친일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우리들 여성의 머리 속에 대화혼이 없고 보면 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며 여성들이 일제의 전시동원체

1992. 1. 17. 순회강연·작품통해 "현장으로" 목청 매춘업자들도 수십명씩 끌고 일본군 수행

파의 죄상을 극명히 밝혀내고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권의 보상 등 과거청산을 위한 뒤 한일 두나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록에는 일제가 '군용위안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반민족책 직후인 1931년으로 되어 있다.

군대국가가 자국의 병사들에게 '중군위안부'를 제공한 경우는 일본제국주의말고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일제는 31년 강시에는 전문 매춘여성들을 데려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일제가 대부분 조선여성으로

업을 벌였다.

일제는 41년 7월 조선총독부와 일본군이 직접 나서 1만여명의 조선여성들을 중군위안부로 끌고가면서 본격적으로 대량 '여성사냥'을 시작했다. 이들은 임시열차편으로 만주에 보내져 소련 만주 국경의 각 부대에 '배급'됐다. 일본군은 군위안부의 인원을 '물품대장'에 올려놓고 군수품 취급을 하며 '사용'했다.

진주만 기습 직후인 41년 12월말에는 일본 육군·해군성이 태평양전쟁 전선 전역에 '기지위안소' 개설을 명했다.

이때부터 친일파 문인·지식인들이 강연과 '창작활동'을 통해

나섰던 많은 조선여성들은 군수공장 등지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결국 중군위안부로 보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화여전 교장이던 김활란은 '징병제와 반도여성의 각오'(<신시대> 1942년 12월)라는 글에서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 "반도여성은 웃음으로 내 아들과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야 한다"며 여성들이 일제의 전시동원에 적극 협력하라고 소리높이 외쳤다.

시인 노천명은 '부인근로대'라는 시에서 "부인근로대 작업장으로/군복을 지으러 나온 여인

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역설했다.

모운숙은 80년 '3·1문화상'을 수상했고 90년에는 작고한 뒤 정부로부터 '금관문화훈장'을 추서받았다.

44년 8월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도 실시와 더불어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고 나서는 이런 강연과 '문학창작활동'을 통한 독려가 별 필요없게 되었다.

이때는 이미 일본군이 형식적인 '모집' '지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십만의 조선인들을 마구 잡기로 전장에 내몰았기 때문이다.

<이상수 기자>



1992. 1. 17. 그해 여름 '정신대 기념'

학년이었던 이들은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일제가 지급한 정신대 제복을 입고(사진 맨앞줄) 영화국교 교문 앞에서 교장(정기출생생 최아무개(61·여·인천시 간석3동·사진 속에 있음)씨는 "일제는 당시 신체가 건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이들 8명의 급우들을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속여 끌고갔다"며 "기독교 계열로 정신대인원 차출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영화국교에 비해 다른 공립학교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끌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국민학교 여학생들의 정신대 강제징발 기록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영화국교에서 1944년 8월 여학생 8명이 정신대로 끌려가기 직전에 찍은 기념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복을 입고(사진 맨앞줄) 영화국교 교문 앞에서 교장(정기출생생 최아무개(61·여·인천시 간석3동·사진 속에 있음)씨는 "일제는 당시 신체가 건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이들 8명의 급우들을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속여 끌고갔다"며 "기독교 계열로 정신대인원 차출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영화국교에 비해 다른 공립학교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끌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사진 인천일보 제공>

여명과 함께 일본군부대 로 옮겨졌다. 이후 평일에 일간 휴일면에서도 일본군들의 복무와 성착취대를 계속